

연합 사업의 전환기

해마다 2월에 접어들면 한국 안에 있는 교회 연합 기관의 총 결산을 평가하는 총회가 잇달아 열리게 된다.

그동안 한국의 연합 기관은, 한국 교회의 자체내의 재력으로서만 유지되어진 기관이 별로 없다. 액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적어도 그 중요한 부분을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. 이러한 기관 중에 YM, YWCA나 성서 공회 그밖에 기독교 매스컴 기관 중 일부는 이미 외원기관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, 거의 자립을 하게 된 것은 꽤 다행한 일이다. 하지만 아직도 연합 기관 중에는 총 집행 예산 중의 10%가 국내 교회 부담으로 되어있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.

이러한 실정에서 살펴 볼 때 앞으로 단일 외국 교회와의 유대(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교회) 강화에서 과거와 같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전망이 짙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

미국 교회 자체가 외국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경을 시도하고 있다. 최근에는 미국 NCC의 외지 선교국의 중요한 문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, 또 새로운 외지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와 실무 책임자를 설립한 것으로 듣고 있다.

이러한 급격한 변천 속에서 한국 교회는 과거와 같이 안이한 외국 의존의 연합 사업을 기대할 수가 없고, 또 실지로 더 이상 이대로

풀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. 이제 한국의 연합 사업은 자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존재를 걸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.

이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한국 기독교 교육협회(KCCE)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하여서 NCC와 통합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. 이것은 단순히 한 기관이 흡수되어져 버려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발전을 연구하고 실천한다는 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 과거에도 계명협회가 기독교 사회에 흡수되었다가 그대로 계명 사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.

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연합 기관이든, 그 기관장이 외국 교회나 에큐메니칼 기관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사업 자금을 끌어 와서 국내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업을 늘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외국 교회나 세계 교회 기관의 재정적 원조를 얻는 일은 힘들겠거니와 그 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러한 원조를 받아들여 온 후에 이것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국내 교회 지도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. 이러한 점을 생각지 않고, 덮어놓고 외국 원조를 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자성해야 할 풍조라고 생각한다.

끝으로 이 기회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, 한국의 교회 연합 기관은 어디까지나 <한국 교회>의 연합 기관이라는 점이다. 어느 기관장의 개인 기업체가 아닌 것은 물론이요, 또 어떤 교회 정치에 능숙한 재주꾼이나 집단의 점유물도 아니다. 교회 연합 기관은 한국 교

회의 선교와 봉사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이요, 또 그 의지와 노력의 표현인 것이다.

해마다 2월이면 철새처럼 넘나드는 불사조의 메들이 이권과 감투라는 메기를 노리고 각 연합 기관의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. 연합 기관 운영이나 조직에는 교회 정치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, 그 기관이 교회 정치의 도구로 변질되면 그 기관의 운영은 파탄에 빠지고 말 것이다.

해마다 한번씩 치루는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의 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한 마디 고언을 드리는 바이다.